

# 지역 맞춤형 상권 육성 본격화

### 중기부, 수도권 쏠림 해소 위해 375억원 투입... 지역 특성별 맞춤 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주요 상권사업 3개 분야에 총 37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상권의 활력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3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련 전략을 보고한 데 이어, 지역상권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단위 1,227개 상권을 분석한 결과, 528개(43.0%)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서울은 176개(14.3%)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에 해당하는 핵심 상권 123개 중 79개(64.2%)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서울에만 43개(35.0%)가 몰려 수도권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매출 격차도 뚜렷했다. 전체 상권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지방이 2,883만원인 반면 수도권은 5,871만원으로 약 2배 높았다. 서울은 1억 373만원으로 서울 외 지역 3,130만원보다 약 3배 많았다. 핵심 상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격차는 더욱 커져 지방 4,376만원, 수도권 1억 6,427만원으로 약 4배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은 2억 5,062만원으로 서울 외 지역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해 유형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글로벌상권 6곳을 선정해 지역별 K-컬처 콘텐츠 개발과 외국인 전용 가이드, 면세거리 조성 등에 상권당 2년간 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로컬테마상권 10곳을 선정해 특화상품 개발과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권당 2년간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컬 창업기업이 밀집한

팔복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유망골목상권 50곳을 선정해 1년간 5억원 규모의 창업·마케팅·브랜딩 지원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개별 상권 지원을 넘어 상권 간 연계 모델도 강화한다. 글로벌상권과 로컬테마상권, 백년시장 등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마켓,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농림축산식품부의 K-미식벨트 사업과도 협업할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수도권 중심의 상권 발달로 소비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상권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길거리를 갖춘 지역 활력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우수'

### 전북개발공사, 94.54점 기록... AI 활용·데이터 분석 높은 평가

전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94.54점을 받아 지방공기업 평균 점수인 78.2점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데이터 수집·가공·분석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행정 방식으로, 행정안전부는 정책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등 신규 평가 지표가 포함돼 데이터 기반 행정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전북개발공사는 데이터 분석과 AI 도입·활용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김대근 사장은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발굴과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AI 활용을 더욱 확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까지 2개 부문 우수 쾌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역량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수준, 데이터 품질, 분석, 공유, 관리체계 등 5개 영역 18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공공서비스 품질과 데이터 접근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부문에서도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우수 등급을 기록하며 두 부문에서 동시에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지원 플랫폼 '카본 AI'를 도입한 데 이어, 전자적인 AI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흥

원은 데이터 기반 행정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관 전반의 데이터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발굴·개방하는 등 실질적인 데이터 행정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대외적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추진하며 민간 활용 기반 확대에 나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규순 원장 직무대행은 "탄소산업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는 기업 협업 기회 확대와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탄소산업 생태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국민연금공단, '최우수 국민제안' 7건 선정

### 235건 접수 제안 중 실효성·창의성 갖춘 우수 사례 포상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반영해 연금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우수 제안 7건을 선정해 포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접수된 국민제안 가운데 실효성과 창의성, 제도 개선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은상 3건, 동상 2건, 장려상 2건 등 모두 7건을 '최우수 국민제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제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제안은 분기별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며, 이 가운데 연간 최우수 제안을 별도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23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주요 선정 사례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온라인 아포스티유 증명서 발급, 연금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고 채널 확대, 일용근로자 가입 대상 판단 기능 개발 등이 포함됐다.

공단은 이번 선정이 국민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의견이 보다 편리한 연금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제안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팩스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중기청, 공영흡소평 혁신기업 제품 코칭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마케팅 역량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공영흡소평 전북지역 혁신기업 제품 코칭 상담회' 참여기업을 4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전북중기청과 공영흡소평이 공동 주관해 전북지역의 우수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는 오는 5월 7일 전주 그랜드힐스테이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레전드 50+'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1일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용사업과 기업지원단 추진 지원사업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1.0 참여기업인 특수목적용 기계부품 기업 104개사와 2.0 참여기업인 농생명·바이오·탄소융복합소재 기업 26개사 등 총 130개

사가 참여했다. 참석 기업들은 사업별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며 향후 사업 참여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전용사업 안내를 비롯해 기업지원단 추진 지원사업 소개, 지원사업 신청 관련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디자인, 마케팅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1.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총 5억2천만원 규모로 17개사 안팎을 지원한다. 기업 수요에 맞춘 패키지 지원은 최대 4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단일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프로그램별 지원도 병행된다.

2.0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은 이번이 1차 모집 공고로 총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 규모는 2억4천682만원으

로 7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1.0과 동일하나 패키지 지원 한도는 최대 4천500만원까지 확대됐다.

/오상근 기자

# 전북은행, 안산외국인금융센터 개점... 금융서비스 확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외국인 고객을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1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역사 1층에 '안산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하고 외국인 고객 대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산외국인금융센터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안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조성된 특화 점포다.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한 입지로 외국인 근로자와 거주 고객의 이용 편의성

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은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고객을 위해 주말에도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탄력적인 상담 운영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외국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대출, 예금, 체크카드, 해외송금, 사고신고 등 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언어 지원이 가능한 외국인 직원을 배치해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금융서비스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